96. [1982년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1982%EB%85%84)까지의 [대한민국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) [축구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B6%95%EA%B5%AC) 리그는 [실업축구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%EC%9D%98_%EC%8B%A4%EC%97%85%EC%B6%95%EA%B5%AC)와 대학리그 토너먼트가 주를 이루었으며, [1964년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1964%EB%85%84)부터 열린 [전국실업축구연맹전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84%EA%B5%AD%EC%8B%A4%EC%97%85%EC%B6%95%EA%B5%AC%EC%97%B0%EB%A7%B9%EC%A0%84)이 1부 리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. [1979년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1979%EB%85%84) [대한축구협회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C%B6%95%EA%B5%AC%ED%98%91%ED%9A%8C)의 회장이 된 신동아그룹 회장 [최순영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B5%9C%EC%88%9C%EC%98%81_(%EA%B8%B0%EC%97%85%EC%9D%B8))은 공약의 하나로 프로축구 리그 창설을 내걸었고, [1980년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1980%EB%85%84) 스스로 구단주가 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축구단인 [할렐루야 축구단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A0%EB%A0%90%EB%A3%A8%EC%95%BC_%EC%B6%95%EA%B5%AC%EB%8B%A8)을 창단했다. 1981년 [전두환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84%EB%91%90%ED%99%98) 정부는 스포츠를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불평불만을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의([3S 정책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3S_%EC%A0%95%EC%B1%85)) 하나로 생각하고 축구와 야구 중 한 종목을 프로화 시킬 계획이었다. 하지만 축구는 프로화에 대한 준비가 전무했고, 방송국 등의 외면 등으로 야구가 먼저 [프로리그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BO_%EB%A6%AC%EA%B7%B8)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하였다.

한편 1982년 각종 국내 축구대회 유료관중은 고작 8,000여명이었다. 1980년 [할렐루야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A0%EB%A0%90%EB%A3%A8%EC%95%BC_%EC%B6%95%EA%B5%AC%EB%8B%A8), 1982년 [유공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9C%EC%A3%BC_%EC%9C%A0%EB%82%98%EC%9D%B4%ED%8B%B0%EB%93%9C_FC) 등 이렇게 먼저 프로구단을 보유한 축구가 한 발 늦게 1982년 출범시킨 [프로야구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BO_%EB%A6%AC%EA%B7%B8)에 관중과 관심을 빼앗긴 탓이었다.

이렇게 1년 앞선 [프로야구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BO_%EB%A6%AC%EA%B7%B8)의 성공적인 출범과 순항에 크게 자극받은 축구계는 과도기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2개의 프로축구구단 [할렐루야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A0%EB%A0%90%EB%A3%A8%EC%95%BC_%EC%B6%95%EA%B5%AC%EB%8B%A8), [유공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9C%EC%A3%BC_%EC%9C%A0%EB%82%98%EC%9D%B4%ED%8B%B0%EB%93%9C_FC)과 3개의 실업축구단 [포항제철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8F%AC%ED%95%AD_%EC%8A%A4%ED%8B%B8%EB%9F%AC%EC%8A%A4), [대우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6%80%EC%82%B0_%EC%95%84%EC%9D%B4%ED%8C%8C%ED%81%AC), [국민은행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3%A0%EC%96%91_KB%EA%B5%AD%EB%AF%BC%EC%9D%80%ED%96%89_%EC%B6%95%EA%B5%AC%EB%8B%A8)을 묶어 5개 구단으로 리그를 조직하고 실업축구단들을 점진적으로 프로화 하여 수년 내 명실상부한 프로축구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.

이 같은 구상의 중심에는 [대한축구협회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C%B6%95%EA%B5%AC%ED%98%91%ED%9A%8C) 장영근 부회장이 있었다. [국민은행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5%AD%EB%AF%BC%EC%9D%80%ED%96%89) 전무이기도 하였던 장 부회장은 1983년 2월부터 축구인 이수환씨, 국민은행원인 조철래, 송만수씨와 함께 극비리에 수퍼리그 출범 준비 작업을 벌였다.

장영근 부회장은 앞으로 [프로야구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BO_%EB%A6%AC%EA%B7%B8)에 밀려 축구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 [최순영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B5%9C%EC%88%9C%EC%98%81_(%EA%B8%B0%EC%97%85%EC%9D%B8)) 회장에게 축구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, 수퍼리그 산파역을 맡았던 것이다. 그는 축구 재건은 국내 경기의 활성화, 즉 팬을 되찾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, 그러기 위해서는 볼만하고 수준 높은 경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. 그래서 명색뿐인 [할렐루야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A0%EB%A0%90%EB%A3%A8%EC%95%BC_%EC%B6%95%EA%B5%AC%EB%8B%A8), [유공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9C%EC%A3%BC_%EC%9C%A0%EB%82%98%EC%9D%B4%ED%8B%B0%EB%93%9C_FC) 두 프로축구단만으로는 ‘프로리그’라는 게 적절치 않았고 실업축구 경기가 '[코리안리그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%EC%9D%98_%EC%8B%A4%EC%97%85_%EC%B6%95%EA%B5%AC)'란 이름으로 열리고 있었던 터라 ‘수퍼리그’라는 명칭을 선정하였다.

일단 첫 해인 1983년은 [할렐루야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A0%EB%A0%90%EB%A3%A8%EC%95%BC_%EC%B6%95%EA%B5%AC%EB%8B%A8), [유공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9C%EC%A3%BC_%EC%9C%A0%EB%82%98%EC%9D%B4%ED%8B%B0%EB%93%9C_FC), [포항제철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8F%AC%ED%95%AD_%EC%8A%A4%ED%8B%B8%EB%9F%AC%EC%8A%A4), [대우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6%80%EC%82%B0_%EC%95%84%EC%9D%B4%ED%8C%8C%ED%81%AC), [국민은행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3%A0%EC%96%91_KB%EA%B5%AD%EB%AF%BC%EC%9D%80%ED%96%89_%EC%B6%95%EA%B5%AC%EB%8B%A8) 이렇게 5개 구단만으로 시작하되 전국 주요도시 순회경기로 축구붐을 조성, 1984년에는 더 많은 구단들의 참가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.

그러나 이 같은 수퍼리그 계획이 새나가자 “프로구단과 실업구단이 같이 뛰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다.”, “너무 성급하다. 3년만에 정착시킨 코리안리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.”는 등의 저항과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. 장영근 부회장은 프로구단과 실업구단이 같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자 강점이라고 주장, 관중이 많아져 붐이 조성되면 자연히 모든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반대파를 설득했다.

축구계의 반발에 반신반의하던 장 부회장은 언론에서 호응해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 [KBS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BS) 이원홍 사장을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. KBS의 반응은 매우 좋았으며 이원홍 사장으로부터 전 경기 사전 예고와 풀 중계를 약속받은 장 부회장은 수퍼리그의 성공을 확신하였다.[[1]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%EB%A6%AC%EA%B7%B8#cite_note-1)

드디어 [1983년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1983%EB%85%84) 2월 28일 [대한축구협회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C%B6%95%EA%B5%AC%ED%98%91%ED%9A%8C)가 수퍼리그 창설에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였고[[3]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%EB%A6%AC%EA%B7%B8#cite_note-3)같은 해 3월 3일 '수퍼리그 위원회'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창설 준비에 들어갔다.[[4]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%EB%A6%AC%EA%B7%B8#cite_note-4)그 후 3개월여의 난산 끝에 계획대로 2개의 프로축구단 [할렐루야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A0%EB%A0%90%EB%A3%A8%EC%95%BC_%EC%B6%95%EA%B5%AC%EB%8B%A8), [유공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9C%EC%A3%BC_%EC%9C%A0%EB%82%98%EC%9D%B4%ED%8B%B0%EB%93%9C_FC)과 3개의 실업축구단 [포항제철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8F%AC%ED%95%AD_%EC%8A%A4%ED%8B%B8%EB%9F%AC%EC%8A%A4), [대우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6%80%EC%82%B0_%EC%95%84%EC%9D%B4%ED%8C%8C%ED%81%AC), [국민은행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3%A0%EC%96%91_KB%EA%B5%AD%EB%AF%BC%EC%9D%80%ED%96%89_%EC%B6%95%EA%B5%AC%EB%8B%A8) 이렇게 총 5개 구단을 원년 멤버로 하는 수퍼리그가 [5월 8일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5%EC%9B%94_8%EC%9D%BC) [동대문운동장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F%99%EB%8C%80%EB%AC%B8%EC%9A%B4%EB%8F%99%EC%9E%A5)에서 화려한 식전 행사와 [할렐루야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A0%EB%A0%90%EB%A3%A8%EC%95%BC_%EC%B6%95%EA%B5%AC%EB%8B%A8)와 [유공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A0%9C%EC%A3%BC_%EC%9C%A0%EB%82%98%EC%9D%B4%ED%8B%B0%EB%93%9C_FC)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였다.[[5]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%EB%A6%AC%EA%B7%B8#cite_note-5) 개막 이후 수퍼리그는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으며, 20,924명의 평균 관중을 기록하였다. 이러한 폭발적인 관중 동원의 이유 중 하나는 엄청난 경품에 있었는데 특히 자사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내놓은 대우는 21,743명의 평균 관중을 기록하기도 하였다.

[1984년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%EB%A6%AC%EA%B7%B8_1984)에는 [체육부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_%EC%B2%B4%EC%9C%A1%EB%B6%80)의 외래어 사용 금지 조치에 따라 리그의 정식 명칭을 축구대제전 수퍼리그로 변경하였다.[[6]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K%EB%A6%AC%EA%B7%B8#cite_note-6) 대우, 포항제철은 프로구단으로 전환하였으며 [현대 호랑이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A%B8%EC%82%B0_%ED%98%84%EB%8C%80_%EC%B6%95%EA%B5%AC%EB%8B%A8)와 [럭키금성 황소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FC_%EC%84%9C%EC%9A%B8)가 리그에 참여하여 총 6개의 프로구단이 되었다. 또, [1984년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1984%EB%85%84) 실업리그인 코리안리그의 우승 팀 [한일은행 축구단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9C%EC%9D%BC%EC%9D%80%ED%96%89_%EC%B6%95%EA%B5%AC%EB%8B%A8)과 1985년 우승 팀 [상무](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83%81%EC%A3%BC_%EC%83%81%EB%AC%B4_%EC%B6%95%EA%B5%AC%EB%8B%A8)가 잇달아 수퍼리그에 참가함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승강제의 모습도 보여주게 된다.